



전시제목 : 쌓다 Stack

참여작가 : 유정민

전시기간 : 2024년 9월 3일 (화) – 9월 24일 (화)

전시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23 연희재 3층

- 아트퍼니처와 조각의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는 유정민 작가의 첫 개인전
- 가구와 조각의 경계에서 실험적인 시도와 특유의 섬세한 조형미를 선보이는 신작을 선보일 예정
- 서울시에서 공모한 '제1회 서울조각상'의 결선 진출작 10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선보이며, 창조적 예술 영역을 확장하는 첫걸음

1. 전시 소개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유정민 개인전 <<쌓다 Stack>>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반복과 곡선을 중심으로 조형 작업을 이어온 작가의 첫 개인전으로, 아트퍼니처와 조각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관계성을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리고 전통적인 장르의 개념에 도전하기보다는 개념적 특징들을 재해석하여 신선한 시각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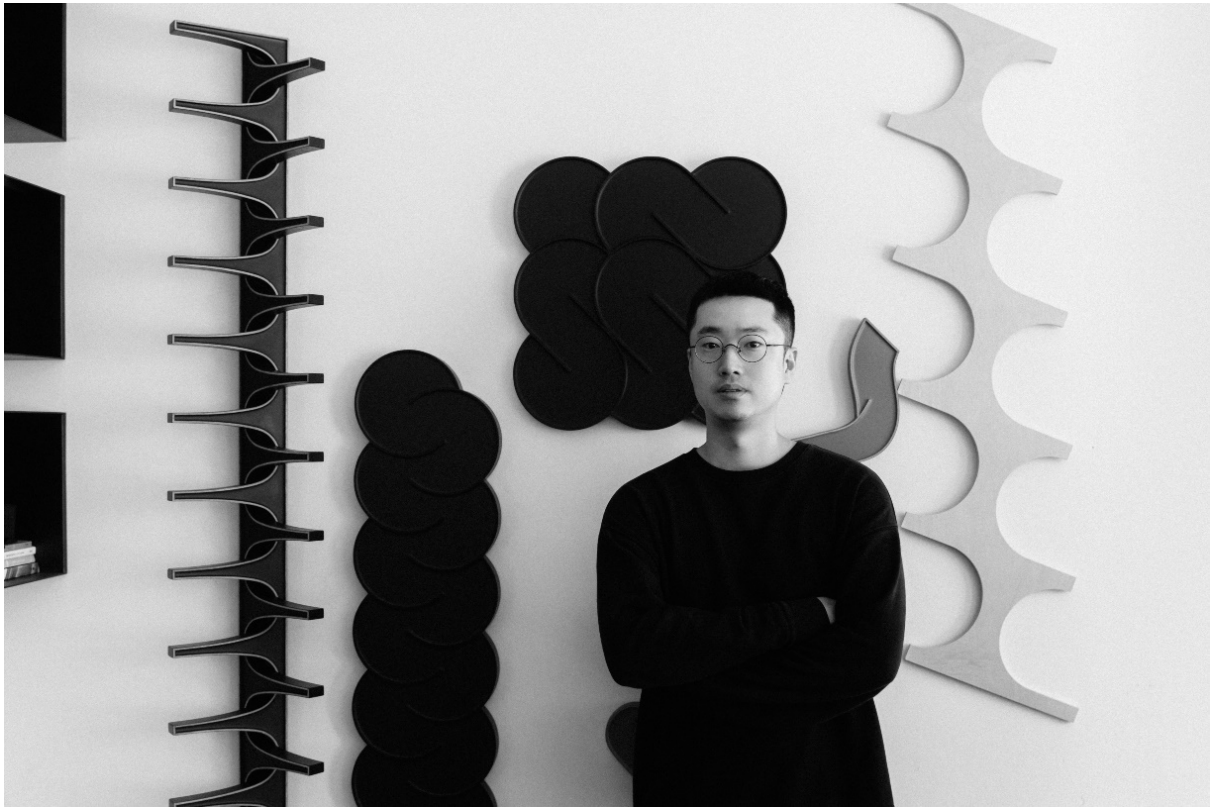
유정민은 오징어 합판을 주재료로 사용해 다양한 아트퍼니처와 조형물을 선보여 왔다. 그의 작품은 재료 본연의 특성을 드러내며,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 <<쌓다 Stack>>은 알바알토(Alvar Aalto)의 대표작인 스톨체어를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특징에 착안해 이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스톨체어는 적층 가능한 기능성 가구로, 유정민은 여기서 '쌓다'라는 행위에 주목한다. 전시된 작품 중 하나인 <Stacked Arch>는 적층된 조형물이자, 분리 시 가구로서의 기능을 지니는 특징을 갖는다. 이 작품은 가구와 조각의 경계를 재조명하며, 기존의 맥락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또한 형태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탐구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평면 입체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그간 사용해 온 블랙의 주조색에서 벗어나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색감을 통해 비정형적인 선에 대한 탐구와 조형미를 한층 더 강조한다. 이처럼 유정민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다양한 매체와 장르의 확장된 영역에서 예술적 감각과 상상력을 자극하며, 자신만의 독창적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서울시가 주관한 '제1회 서울조각상' 결선 진출작 10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작가의 첫 야외 조각은 9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한 범주에 국한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도전에 나서는 작가의 예술적 활동 영역 확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2. 작가 소개

유정민 (b. 1990)



1990년 예천 출생인 유정민은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작가는 반복과 변형을 주제로, 재료의 잠재적 가능성과 본연의 성질을 이끌어내는 조형적 형태를 탐구한다. 그의 작업에서 '아치'는 중요한 요소로, 정적이면서도 동적으로 움직이는 곡선의 형태를 통해 추상적 형상을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그는 오징어 합판의 유연한 성질을 활용해 아치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곡선을 담아내는 다양한 도상을 창조하는 작업을 한다.

유정민은 아트퍼니처, 조각, 평면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개념을 구현하며, 다각적이고 독창적인 조형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문제적 공예(2020, 아트비트갤러리), unparasite(2021, 플랫폼엘), THèSE(2021, 분더샵), ART-IST(2022, 분더샵), Spectrum of Seating(2022, DDP), 제4회 한글실험프로젝트(2022,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있으며, 글로벌 기업인 싱가포르 TWP사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제1회 서울조각상'의 결선 진출작 10인에 선정되었다.

3. 작품이미지



유정민

stacked arch 02

2024

plywood, resin, 390x290x1990(h)mm



유정민

stacked arch 02_Detail



유정민

stacked arch 03

2024

plywood, resin

450x290x2270(h)mm



유정민

stacked arch 03_Detail



유정민

arch series 34

2024

plywood, resin

300x195x1900(h)mm



유정민

contour series 03

2024

plywood, resin

510x510x35mm



유정민

contour series 05

2024

plywood, resin

900x560x35mm



유정민

contour series 06

2024, plywood, resin, 750x750x40mm



유정민

contour series 04

2024, plywood, resin, 970x335x35mm



유정민

contour series 07

2024

plywood, resin

300x155x1630(h)mm



유정민 Installation view



유정민 Installation view

4. 전시 서문

새로운 관계성을 구축하다.

예술의 범주는 역사적으로 규정되어 온 카테고리이지 보편적인 카테고리는 아니다. 예술에서의 개념은 불변(不變)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변화의 여지를 가지고, 그 자체의 내재적 논리와 규범을 지니고 있다. 이전 조각 개념이 기념비적인 재현에서 벗어나고, 가구에 예술적 측면이 부각되었듯이 말이다. 특히 일상과 예술의 간극을 없애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고, 절대적 이념을 거부하며 다양한 양식의 예술 작품들을 등장시켰다. 회화와 조각에서의 변화만큼 공예와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경계와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방식들을 모색해왔다. 그리고 과정을 거쳐 모든 개념이 융합된 오늘날의 예술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진 매체의 정의나 인식에 따라 장르의 범주를 확정 짓지 않으며, 문화적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적용되는 복합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반복과 변형

홍익대학교 목조형가구학을 전공한 유정민은 아트퍼니처를 중심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아트퍼니처는 가구의 실용성과 기능성에 나아가 심미적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하는 분야이다.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미니멀한 가구의 형태에 스테이플러나 글루건 같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실험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재료의 확장성에 대해 도전하고 연구하였다. 이의 과정에서 낯선 요소들이 주는 신선한 재미를 가구에 접목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의 간극 사이에 균형감을 찾으며, 조형물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였다.

초기, 하나의 재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시각적 심미성을 추구하였던 작가는 이후, 오징어 합판이라는 주 재료를 만나 '반복'의 개념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징어 합판의 유연성을 재료의 물성에 대해 연구하고 잠재된 기능을 끌어내며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여왔다.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형태 가운데 '점'과 '선'을 통해 모든 형태의 본질적인 요소를 찾고자 했는데, 유정민은 자연스러운 '곡선'에 주목한다. 이는 그의 대표작 '아치 시리즈(Arch Series)', '스플라인 시리즈(Spline Series)'에서 잘 드러난다. 가장 아름다운 곡선의 미학인 '아치'를 통해 안정적인 형태의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스플라인'을 통해 곡선의 자유로움과 변형적인 모습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유정민의 작업은 일상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 그는 일상에서 포착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도상(Icon)으로 담백하게 표현한다. 도상은 일상에서 사물을 관찰하며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과 기억에서 출발한다. 일상적인 사물과 움직임에 영감을 받아 뇌리에 박혀 있는 무형태의 기억을 형태로 구현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도상은 '미니멀 형식'의 간결하고 단순한 조합을 따르며, 뚜렷한 형상으로 묘사하여 작품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작가만의 고유한 작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쌓다 : 아트퍼니처와 조각의 관계성

이번 개인전 <쌓다: Stack>은 기존 가구의 개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여, 장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서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형태를 중시하며, 기존의 아치 시리즈를 순수미술의 설치 작업으로 새롭게 해석, 발전시킨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알바 알토(Alvar Aalto)의 대표작인 스톨체어의 적층 가능한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스택킹 체어(Stacking Chair)는 적층 가능한 의자로 기능성과 실용성을 함께 가지는데, 유정민은 여기서 “쌓다”라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한다. 그동안 스톨을 대표작으로 선보였던 작가는 본 전시에서 스택킹 한 조형물을 선보인다. 신작 <Stacked Arch>은 적층 한 조형물이 하나의 조각으로 전환되고, 분리 시 각각이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를 통해 가구와 조각의 효용성과 기능성에 대해 형태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함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비단 “쌓다”라는 행위는 외부적인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작가의 “쌓다”라는 행위는 작품 제작 초기 단계부터 시작한다. 그는 작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형물의 내부에 골조를 세우는 방식으로 지지대를 쌓아 올리며, 단단한 연결고리를 장착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면을 덮고 레진을 부은 뒤 갈아내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조형물을 완성한다. 그리고 완성된 조형물들은 다시 적층하여 현대미술에서의 조각 개념을 가진 새로운 조형물로 재탄생시키며, 가구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관계성을 조율한다.

유정민은 실용적 의미나 감상적 의미의 오브제를 제안하기에 앞서, 관객의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를 수용하는 조형물에 대한 조형물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가구가 특정 장소에서 기능적 역할을 가지는 반면 조각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형적 오브제가 가지는 특정 장르를 넘어 새로운 상황을 구축하는 작업의 존재 방식을 제안하며, 작품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비정형적인 곡선에 대해 새로이 고찰한 입체 평면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2022년부터 곡선의 표현에 다층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작가는 처음으로 시도한 평면 작품을 통해 비정형적인 형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시각적 요소들을 인지하는 방식에 대해 관찰하고, 이로부터 현상학적 지각 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유정민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삶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름답게 기능하는 아트퍼니처를 다른 방식의 읽기로 시도한다. 현대미술의 맥락에서 미(美)와 기능에 대한 균형을 논의하며, 익숙하지만 낯선 관점을 제시하여 감각과 인식의 확장을 추구한다. 그리고 경계를 구분 짓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작가의 첫걸음을 시작한다.

5. 갤러리 소개

DISCOVER INSPIRING ARTISTRY

독창적인 작가 발굴과 섬세한 기획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예술적 영감을 주며, 현대미술의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2010년 싱가포르에서 한국현대미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였던 갤러리 휴(Gallery Huue)는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서울에서 갤러리를 개관하였다. 지난 14년 동안 싱가포르 현대미술 현장의 최전선에 서있으며, 섬세하게 기획된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과 작가를 소개하고, «ART-IST : ways of seeing», «These 테제»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대 작가들을 새로이 조망하고자 한다.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는 유행의 따라가는 예술이 아닌 다양한 사조를 선도하는 예술에 주목한다. DIA는 고대 그리스어로 '-저너머'라는 뜻도 함께 가지는데, DIA 컨템포러리는 단어 뜻 그대로 현대 미술의 탐험과 혁신적인 변화를 촉진한다는 비전을 가진다. 이에 장르의 경계를 넓히는 창의적이고, 신중하게 선별된 기획 전시를 통해 새로운 현대미술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시각으로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작가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혀주고,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 대화를 유도하여 활기찬 현대미술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는 7월 디아 in 연희'를 시작으로 실험적인 정신과 태도로 장르의 한계가 없는 전시를 통해 다양한 예술적 맥락을 수용하고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나아가 11월에는 디아 in 삼청' 전시 공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날 역동적인 미술 시장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새로운 세대의 작가들의 전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 현대미술 외연과 담론의 폭을 넓히는 기획전을 통해 디아만의 다채로운 아트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JQOvlea2WqY2C9YkFGsO_P_rNoCTI6l7?usp=drive_link

[문의]

담당자 : 이윤정 | yoona@diacontemporary.com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23, Yeonhui-ro 11ga-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07

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